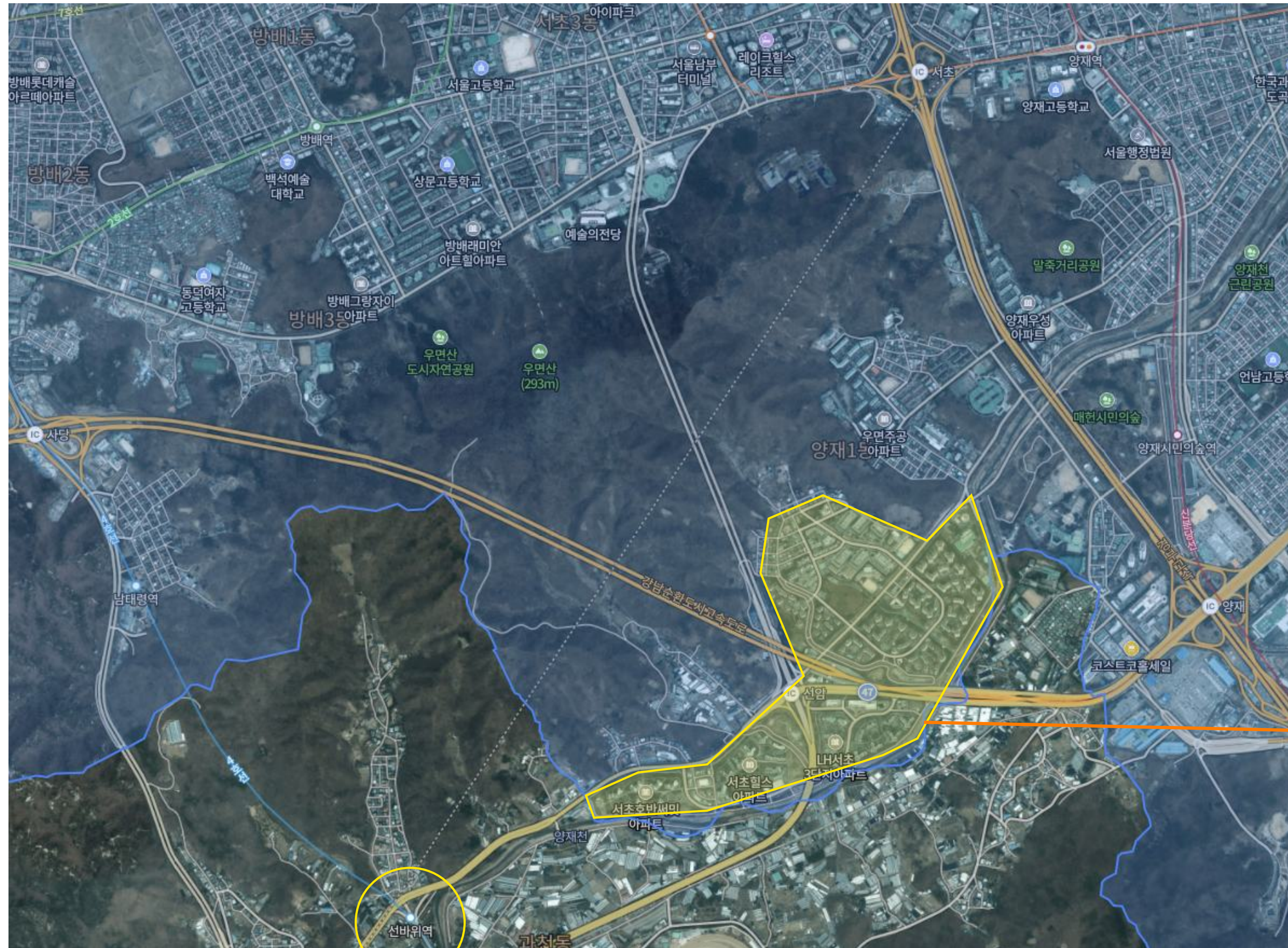


선바위역 따릉이 설치 필요성

범례 서울시 영역



서울시설공단은 공공자전거 '따릉이'는 소중한 서울시민의 세금(서울시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 외 타 지역으로 확대운영 시, 자전거 분실예방과 고장자전거 회수 및 적정자전거 대수유지를 위한 자전거 이동에 투입되는 시간, 경제적 비용 등 관리비용의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서울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나,

서울에서 1km도 떨어져 있지 않은 선바위역의 주이용자가 서울시민이고, 우면동은 인근에 지하철역이 없는 교통 소외지역으로 그나마 제일 가까운 선바위역이 양재천을 따라 통행이 용이하여 따릉이가 선바위역에 설치가 되어 있으면 양재천을 따라 많은 서울시민이 선바위역 이용의 편익이 올라가는 점 등 지역의 특수성은 고려하지 않고 서울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제한하고 있음.

- 선바위역 이용 서울(우면동) 시민들
 - 우면동 거주 주민 : 네이처힐 등 1만 세대+
 - 우면동 입주 기업 : 삼성전자, LG, KT 등